



유업 언약 갱신 문서

마닐라, 2024



2024년 9월, 110 개 이상의 국가에서 4,500 명 이상의 YWAMer 들이 YWAM Together 에 참석하기 위해 마닐라에 모였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유업의 언약(Legacy Covenants)을 선언하였다.

우리는 다세대 협력의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것은 로렌 커닝햄이 2023년 10월 6일, 하늘 본향으로 졸업한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다른 많은 사랑받는 YWAMer 들과 함께 떠났다) 우리 선교 운동의 첫 번째 국제 모임이다. 창립자들로부터 받은 영적 DNA 를 상기하면서 우리는 명시된 목적(stated purpose), 핵심 신념(core beliefs) 및 기본 가치(foundational values)에 새롭게 헌신한다. 이것은 우리가 로렌이 평생동안 하나님과의 우정을 더욱 키워나갔던 본을 따라살며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에만 가능하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선교 운동의 지도자이심을 확인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래왔던 방식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목적을 섬기는 방식일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를 따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구조적 틀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거룩함과 적극적인 순종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성결케한다.

우리는 로렌 커닝햄(Loren Cunningham)을 통해 받은 네 가지 유업의 단어를 확충한다:

- 사람들이 모든 곳으로부터 모든 곳으로 나가는 **파도의 비전 (the vision of the waves)**,
- **사회 영역(the spheres of society)**을 통해 열방을 제자삼으라는 부르심,
- **기독교 대헌장(Christian Magna Carta)**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
- 모든 모어(mother tongue)로 **지금 성경 빈곤을 종식(End Bible Poverty Now)**하라는 부르심!

우리는 이 네 가지 유업의 단어가 각각 서로를 보완한다는 것을 안다. 각 유업의 단어는 지상대명령의 “모든(the alls)과 만민(the everys)”을 완수하는 방법에 대한 특유의 관점을 제시한다.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 이것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꿈을 이루기 위한 총체적이고 통합된 전략 지식(meta-strategy)을 제시한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없는 곳(Where we are not)으로 가서 가장 작은 자(the least), 남겨진 자(the last), 잃어버린 자(the lost)를 섬기기 위한 창조적 혁신의 무수한 기회가 담겨 있다. 함께라면 우리는 가능한 가장 큰 선교적 영향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세대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의 관심을 이끄셨다. 우리는 이제 가장 젊은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라고 선언한다. 다세대 운동(multigenerational movement)으로서 우리는 항상 젊은이들을 옹호하는 것(championing young people)에 헌신한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뻐하며 길을 열어준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확장된 리더십 팀을 세우고 위임할 때 열방대학(the University of the Nations)을 강조하셨다. 우리는 열방대학이 새롭게 등장하는 세대가 선교적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사역임을 확인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우리가 아프리카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셨다. 우리는 비극적인 아루샤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12 명을 함께 기억했다. 우리는 아프리카가 우리의 미래에 전략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아프리카 인구는 지금부터 2100년 사이에 10억 명에서 거의 40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아프리카 25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현재 25세 미만이다. 이미 세계 기독교인 4명 중 1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선교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우리 가운데 기도와 중보기도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열정적인 기도가 삶의 방식으로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불타는 열정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우리 YWAM 의 역사(history)에서 기도와 예배는 항상 우리의 사도적 활동(apostolic initiatives)의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 사역과 사도적 확장(apostolic expansion)의 기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함께한 시간 동안 우리는 전 세계에서 온 간증을 들었다. 각각의 간증은 “This is my story!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라는 문구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은 모두 “This is our story!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실제로 “This is His story! (이것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라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간 사람으로부터 소중한 유업을 받았으며, 그것을 미래 세대에게 충실하게 물려줄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사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닐라를 떠나면서, 연합가운데 함께 걸을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기로 결단한다.